

이슈 1 보험회사 사업비율 특징과 시사점

- 최근 보험 사업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관련 공시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정책당국, 보험회사 경영진 등의 보험 사업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
 -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보험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보험서비스 제공 과정을 보다 효율화 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 필요함.
 -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 경영전략 차원에서 사업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함.
- 본고는 보험서비스 제공 시 소요되는 평균비용에 해당하는 사업비율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 사업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현 외형성장 중심의 사업모형에서 장기적으로 사업비율 하락이 가능한지 여부와 사업비율 하락에 대한 장애요인 등에 대해 검토함.
 - 미시경제이론을 참조하여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사업비율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함.
 - 각 업종별로 대표성을 갖는 대형·중소형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사업비율에 대한 부분조정모형을 설정하고, 동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
- 분석결과로부터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외형을 확대할 경우 사업비율이 하락하기 어려우며, 그러한 결과가 신계약비 통제에 어려움에서 기인함을 확인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영업수익(수입보험료) 규모가 커서,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영업수익(경과보험료) 성장률이 높아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사업모형의 전환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회사가 외형성장을 계속할 경우 사업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이므로 신계약비 증가의 적절한 통제 여부에 따라 전체 경영성과가 좌우될 것으로 보임.

1. 검토배경

■ 최근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확대, 보험시장의 경쟁강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사업비 관련 공시가 강화되는 추세임.

- 지난 2009년부터 저축성 변액보험을 대상으로 적용되어 온 사업비 세부내역 공시가 2010년 하반기부터 다른 보험상품으로 확대 적용됨.
 - 금융소비자(보험계약자)가 보험상품을 선택하는 시점에서 보험료의 내역과 수준을 보다 쉽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상품공시를 강화함.
 - 또한 제도 변화(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자율상품과 현금흐름방식의 보험료 산출제도 도입)와 보험회사 상품개발의 자율성 확대에 대응하려는 목적도 존재함.
 - 결과적으로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에 대해 보험회사별 비교가 가능해짐에 따라(〈그림 1〉 참조), 보험회사들이 경영전략 차원에서 사업비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통제하려는 유인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1〉 사업비 요인별 공시

보험관계비용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위험보험료	매월
특별계정 운용비용	특별계정 운용/수탁보수	기초펀드의 보수/비용	매일	
	증권거래비용 및 기타비용			사유발생시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매월	
수령기간 중 관리비용	연금수령기간 중의 관리비용			매년
	노후설계자금 신청 시 관리비용			매월
해지공제	해지에 따른 패널티			해지 시

- 본고는 보험서비스 제공 시 소요되는 사업비율(평균비용¹⁾)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험 사업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현 사업모형 구조 하에서 장기적으로 사업비율 하락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회사가 사업비율 하락을 위해 필요한 사업모형 구조 개선 방향 등에 대해 검토함.
 - 우선 미시경제이론을 참조하여 영업수익 규모와 사업비율 사이의 관계를 규명함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나타날 수 있는 조건(보험회사가 성장을 지속하면서도 사업비율을 낮출 수 있는 조건)을 도출함.
 - 다음으로 부분조정모형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현재의 사업비율이 외형 성장 시 사업비율이 하락할 수 있는 구조(규모의 경제가 발생될 수 있는 구조)인지 여부를 확인함.
 -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면 보험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사업비율 하락이 가능하므로, 향후 추가적인 외형성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할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험회사에서 규모의 경제 발생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해당 장애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모형 구조를 모색함.

2. 영업수익 규모와 사업비율의 관계

- 영업수익 한 단위당 소요되는 사업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사업비율(expense ratio)은, 어떤 보험회사가 특정 기간 동안에 일정한 수준의 매출을 달성하기 위해 지출해야 하는 평균비용(average cost)에 해당함.
 - 다른 요인들을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단지 영업수익(S)과 사업비(C)의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비용함수를 가정함.

$$C = C(S) \quad (1)$$

1) 제조업에서는 산출물 1단위당 소요되는 생산비용이 평균비용인 반면, 보험업에서는 물리적인 산출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영업수익 1단위당 소요되는 사업비를 평균비용으로 간주함.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매출에 해당하는 영업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단위당 원가는 평균비용에 해당함.

- 해당 기간 동안의 사업비는 고정투입요소와 관련된 비용인 총고정비용(C_f)과 가변투입요소와 관련된 총가변비용(C_v)의 합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이때 총고정비용은 해당 기간 동안의 영업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²⁾인 반면, 총가변비용은 영업수익 규모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비용³⁾임.

$$C = C_f + C_v \quad (2)$$

- 영업수익의 변화에 따르는 총가변비용의 변화 정도는 가변투입요소와 영업수익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에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
 - 초기에는 영업수익 한 단위를 증가시키기 위해 추가로 소요되는 가변비용의 증가 속도가 점차 둔화되다가⁴⁾, 영업수익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총가변비용이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 증가속도 또한 점차 빨라질 수 있음⁵⁾.
 - 이때 총비용의 변화 양상은 총가변비용의 변화 양상과 일치함⁶⁾.
- 평균비용으로서의 사업비율(c)은 총비용(C)을 영업수익(S)으로 나눔으로써 산정되는데,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함.
 - 이 식에서 c_f 와 c_v 는 각각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을 의미함.

$$c = \frac{C}{S} = \frac{C_f}{S} + \frac{C_v}{S} = c_f + c_v \quad (3)$$

- 평균고정비용과 평균가변비용의 합으로 구성되는 사업비율(평균비용)은 영업수익이 작을 때는 평균고정비용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는 반면, 영업수익이 클 때는 평균가변비용이 체증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음(〈그림 2〉 참조).

2) 건물이나 설비의 감가상각비, 재산세, 최고경영진 보수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3) 임직원 보수, 각종 수수료, 법인세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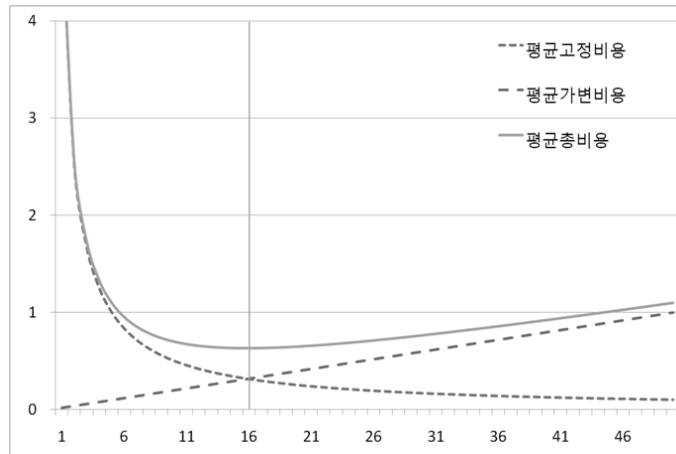
4) 이러한 상황에서 총가변비용 곡선은 오목한 형태를 가짐.

5) 이러한 상황에서 총가변비용 곡선은 볼록한 형태를 가짐.

6) 이는 단기에서 고정비용이 매몰비용(sunk cost)으로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오직 가변비용만이 의사결정의 기초가 됨을 의미함.

- 총고정비용은 영업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이 지출되는 비용인 만큼, 영업수익이 커짐에 따라 평균고정비용(영업수익 1단위당 소요되는 고정비용)은 점차 감소함⁷⁾.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추가변비용의 증가속도가 처음에는 점차 감소하다가 영업수익이 일정 수준에 도달한 이후 점차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평균가변비용은 처음에는 감소하는 추세에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됨⁸⁾.

〈그림 2〉 영업수익 vs 평균비용



■ 지금까지 논의한 영업수익과 사업비율(평균비용) 사이의 관계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사용하여 현 사업비율 구조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판단함.

- 영업수익 증가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하는 것(즉, $dc_v/dS > 0$)이 일반적인데⁹⁾, 이 경우 영업수익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사업비율이 하락함.
 - [조건 1]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수익 규모의 범위는 영업수익 증가에 대응한 평균가변비용 변화 정도($k_1 \equiv dc_v/dS$)와 고정비용에 의해 결정됨.

7) 평균고정비용곡선은 직각쌍곡선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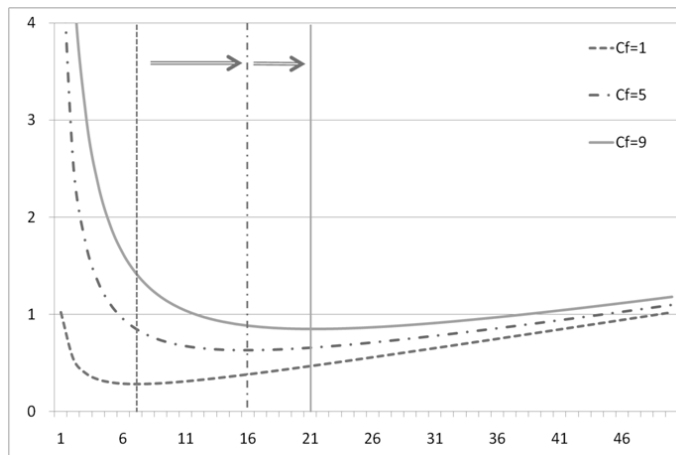
8) 이 경우 평균가변비용 곡선은 U자 모양을 가짐.

9) 영업수익 규모 증가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즉, $dc_v/dS \leq 0$ 인 경우), 영업수익 규모 증가 시 사업비율은 항상 감소함.

$$S \leq \sqrt{\frac{C_f}{k_1}} \Rightarrow \frac{dc}{dS} \leq 0 \quad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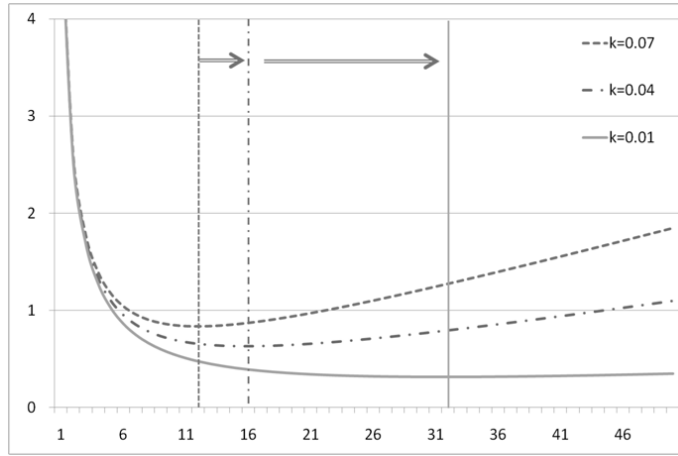
- 예를 들어, 고정비용이 5이고 영업수익 증가에 대응한 평균가변비용 민감도가 0.04인 경우, 영업수익이 약 16 이하이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반면, 영업수익이 약 16 이상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함(〈그림 2〉 참조).
- 고정비용이 증가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영업수익 범위가 확대되는데, 예를 들어 고정비용이 1, 5, 9일 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수익 임계수준은 각각 8, 16, 21임(〈그림 3〉 참조).

〈그림 3〉 고정비용 증가 효과



- 영업수익 증가에 대응한 평균가변비용 변화 민감도가 감소하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영업수익 범위가 확대되는데, 예를 들어 민감도가 0.07, 0.04, 0.01일 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수익 임계수준은 각각 12, 16, 32임(〈그림 4〉 참조).

〈그림 4〉 평균가변비용 민감도 감소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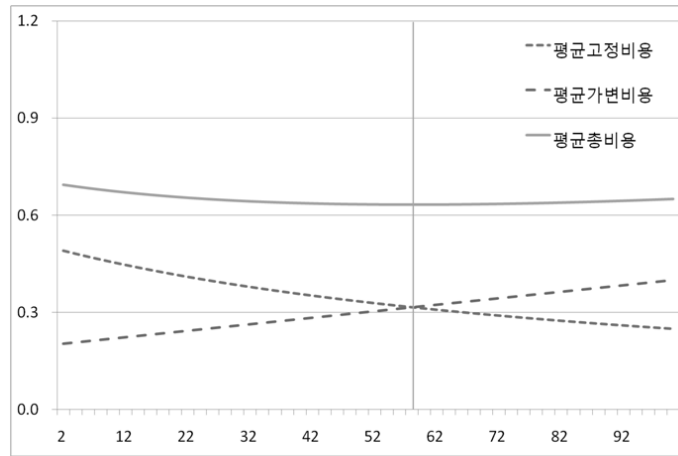
- 영업수익 성장률 증가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하는 것(즉, $dc_{v,t}/dg_t > 0$)이 일반적인데¹⁰⁾, 이 경우 영업수익 성장률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만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여 사업비율이 하락함.
 - [조건 2]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영업수익 성장률의 범위는 영업수익 성장률 증가에 대응한 평균가변비용 변화 정도($k_2 \equiv dc_{v,t}/dg_t$), 고정비용, 그리고 이전 시점의 영업수익 규모에 의해 결정됨.

$$g_t \leq \sqrt{\frac{C_f}{k_2 S_{t-1}}} - 1 \Rightarrow \frac{dc_t}{dg_t} \leq 0 \tag{5}$$

- 예를 들어, 영업수익 성장률 증가에 대응한 평균가변비용 민감도가 0.02, 고정비용 규모가 5, 이전 시점 영업수익 규모가 10인 경우, 영업수익 성장률이 약 58% 이하이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반면, 영업수익 성장률이 약 58% 이상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함(〈그림 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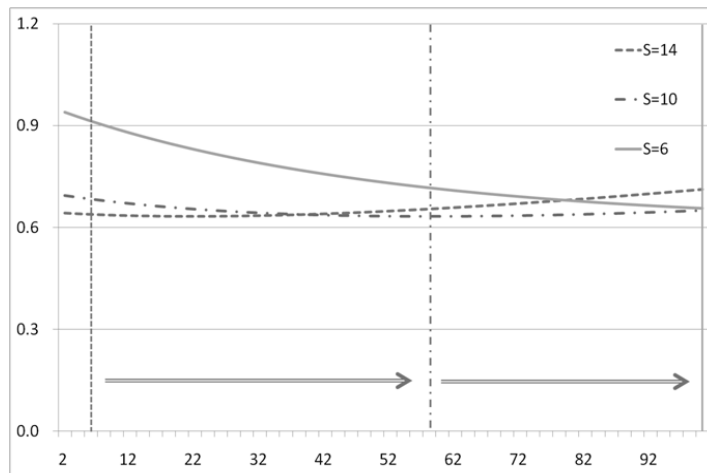
10) 영업수익 성장률 증가에 따라 평균가변비용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즉, $dc_{v,t}/dg_t \leq 0$ 인 경우), 영업수익 성장률 증가 시 사업비율은 항상 감소함.

〈그림 5〉 영업수익 성장률과 사업비율 관계



- 이전 시점 영업수익 규모가 작으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영업수익 성장률 범위가 확대되는데, 예를 들어 이전 시점 영업수익 규모가 14, 10, 6으로 작아지는 경우,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영업수익 성장률 임계수준은 각각 6%, 58%, 100%임(〈그림 6〉 참조).

〈그림 6〉 영업수익 수준 감소 효과



3. 실증분석

- 앞서 제시한 [조건 1]과 [조건 2]를 참조하여, 보험회사들의 영업수의 규모와 영업수의 성장률이 합리적인 수준(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수행함.
 - 최근 5개년(2005년 12월부터 2010년 9월까지)간 국내에서 활동한 대표적인 보험회사(10개 생명보험회사, 10개 손해보험회사)의 사업비율에 대한 분석에 집중하고, 그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은행(7개 시중은행) 대상 분석결과를 참조함.
 - 분석대상 금융회사별 사업비율의 평균(분석기간인 20개 분기 평균)은 <표 1>에 제시되어 있음.

3.1 분석모형

- 사업비율에 대한 부분조정모형을 토대로 실증분석모형을 설정함.
 - 우선 보험회사의 상품포트폴리오, 판매채널 등과 관련된 경영전략에 따라 사업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경영전략 차원에서 사업비율의 예정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가정함.
 -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 실현된 사업비율 변화($\Delta y_{i,t}$)는 보험회사의 전략적 조정($\Delta^d y_{i,t}$)에 의한 것도 있지만 외생적 충격($\eta_{i,t}^o$)에 의한 것일 수도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설정함.

$$\Delta y_{i,t} = \Delta^d y_{i,t} + \eta_{i,t}^o \quad (6)$$

- 한편, 보험회사가 의도한 사업비율 조정의 전부가 해당 시점에 달성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분조정모형(partial adjustment model)을 사용함.
 - 보험회사 i 의 t 분기 사업비율 예정수준($y_{i,t}^*$)과 $(t-1)$ 분기의 사업비율 실현수준($y_{i,t-1}$) 간의 괴리에 비례하여 사업비율의 조정 폭이 설정되지만, 이와 같이 의도된 조정 중 일부만이 t 분기에 실현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사용함.

$$\Delta y_{i,t} = \delta(y_{i,t}^* - y_{i,t-1}) + \eta_{i,t}^o \quad (7)$$

- δ 는 사업비율에 대한 조정계수(coefficient of adjustment)로서 0과 1사이의 값을 갖는데, 그 값이 클수록 예정수준으로의 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짐을 의미함.
- 한편 식(7) 좌변의 차분변수를 수준변수로 조정하면 다음과 같음.

$$y_{i,t} = (1 - \delta)y_{i,t-1} + \delta y_{i,t}^* + \eta_{i,t}^o \quad (8)$$

- 사업비율 예정수준이 영업수익 규모와 영업수익 성장률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설정함.
- 식(8) 좌변에서 사업비율의 예정수준은 직접 관측될 수 없으므로 관측 가능한 변수들을 통해 예정수준을 간접적으로 추정함¹¹⁾.
- 즉, 사업비율의 예정수준이 이전 시점의 영업수익 규모($s_{i,t-1}$)와 동 시점의 영업수익 성장률($g_{i,t}$)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함¹²⁾.

$$y_{i,t}^* = \gamma_0 + \gamma_1 s_{i,t-1} + \gamma_2 g_{i,t} + \tilde{\eta}_{i,t} \quad (9)$$

- 식(9)을 식(8)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관측 가능한 사업비율($y_{i,t}$)이 이전 시점의 사업비율($y_{i,t-1}$), 영업수익 규모($s_{i,t-1}$), 해당 시점의 영업수익 성장률($g_{i,t}$)에 의해 설명되는 방정식이 도출되는바, 동 방정식을 대상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함.

$$y_{i,t} = \alpha_0 + \alpha_1 y_{i,t-1} + \beta_1 s_{i,t-1} + \beta_2 g_{i,t} + \eta_{i,t} \quad (10)$$

- 이때 $\alpha_0 = \gamma_0 \delta$, $\alpha_1 = (1 - \delta)$, $\beta_1 = \gamma_1 \delta$, $\beta_2 = \gamma_2 \delta$ 및 $\eta_{i,t} = \eta_{i,t}^o + \delta \tilde{\eta}_{i,t}$ 가 성립함.

11) 보험회사는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경영목표(예, 기업가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예정수준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예정수준은 보험회사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만큼, 관측되는 변수를 활용하여 예정수준을 추정한다.

12) 미시경제이론에서 비용함수 설정 시 산출량과 생산비용의 관계에 주목하는 점을 참조할 때 사업비율의 예정수준이 영업수익 규모, 영업수익 성장률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한편, 식(10)의 오차항($\eta_{i,t}$)을 관측 불가능한 개별 보험회사의 특성에 상응하는 부분(μ_i)과 각 시점에서의 외생적 충격에 상응하는 부분($\epsilon_{i,t}$)으로 구분함.

$$y_{i,t} = \alpha_0 + \alpha_1 y_{i,t-1} + \beta_1 s_{i,t-1} + \beta_2 g_{i,t} + \mu_i + \epsilon_{i,t} \quad (11)$$

- 식(11)은 종속변수의 과거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동적패널모형(dynamic panel model)인바, 일치추정량을 구하기 위해 Allerano & Bond(1991), Allerano and Bover(1995) 등에서 제시한 GMM추정법을 사용함¹³⁾.

3.2 가설설정

- 식(11)을 기준으로 상수항, 전기의 사업비율, 영업수익 규모, 그리고 영업수익 성장률에 대한 계수들의 부호에 대해 각각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함.
 - 사업비율 중 고정적 부분(영업수익 규모나 성장률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부분)이 0과 1사이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고정적 사업비가 소요되지 않으면서 영업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고, 고정적 부분이 양(+의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영업수익이 고정적 부분에 평균적으로 미치지 못하면 보험영업을 중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만큼, 고정적 부분이 1보다 작은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식(9)에 정의된 사업비율의 고정적 부분(γ_0)은 식(11)의 상수항(α_0)과 이전 시점 사업비율에 대한 계수(α_1)로부터 산정됨.

$$0 < \gamma_0 = \left(\frac{\alpha_0}{1 - \alpha_1} \right) < 1$$

- 예정수준으로의 조정속도(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모형을 전환함으로써 사업비율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 수준)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13) 동적패널모형에서는 설명변수와 오차항 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 model)이나 확률효과모형(random effect model)을 사용하는 경우 일치추정량을 얻을 수 없음.

- 보험회사가 사업모형(상품 포트폴리오, 판매채널 포트폴리오 등)을 전환하여 사업비율을 예정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클수록 조정속도가 보다 큰 값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부분조정 모형의 기본적인 가정에 따른 것으로, 식(7)에 정의된 조정속도(δ)는 1에서 식(11)의 이전 시점 사업비율에 대한 계수(α_1)를 차감하여 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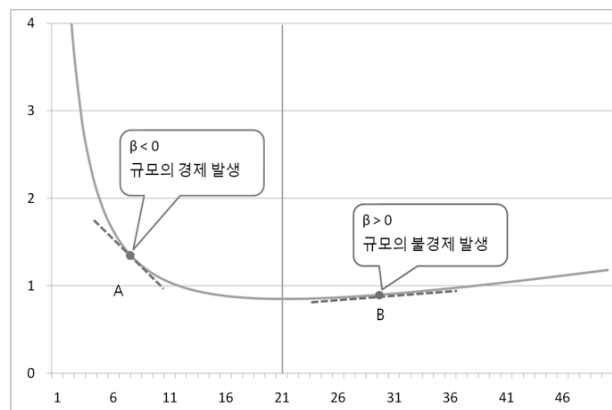
$$0 < \delta = (1 - \alpha_1) < 1$$

- 영업수익 규모에 대한 계수(β_s)와 영업수익 성장률에 대한 계수(β_g)가 음(-)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영업수익 규모가 식(4)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 그리고 현재의 영업수익 성장률이 식(5)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라고 보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가 강하게 나타날수록 β_s 와 β_g 가 보다 작은 값을 가질 것임.

$$\beta_s < 0 \quad , \quad \beta_g < 0$$

- β_s 와 β_g 가 음(-)의 부호를 가지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영업수익 규모나 성장률이 증가할 때 사업비율이 하락)하는 상황인 반면, β_s 와 β_g 의 부호가 양(+)이면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그림 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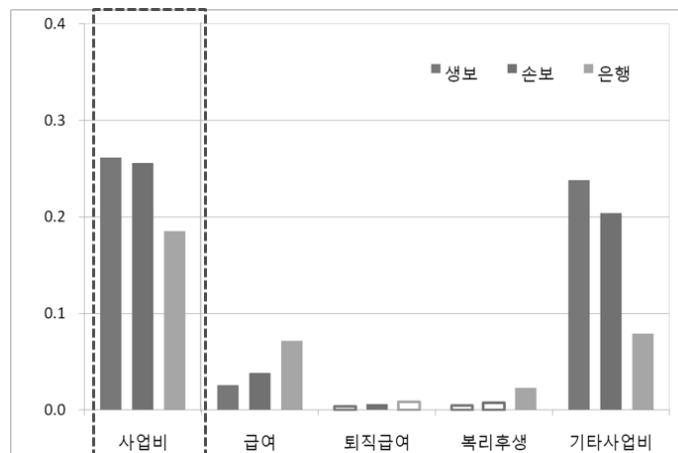
<그림 7> 계수 값 부호와 규모의 경제



3.3 분석결과

- 전반적인 분석결과를 볼 때 앞서 설정한 대부분의 가설들이 성립하였음.
 - 사업비 전체에 대한 비율을 대상으로 분석하는 한편, 사업비를 네 가지 항목(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기타사업비)으로 구분하고 각 항목에 대한 비율을 대상으로 추가로 분석한 결과를 함께 제시함.
 - 기타사업비에는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이외의 사업비 항목들이 포함되는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외 유지비와 신계약비를,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지급경비에서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를 제외한 11개 항목(일반관리비, 신계약비, 대리점수수료 등)을, 은행은 판관비 중 임차료와 기타 판관비를 포함함.
 - 사업비율 예정수준 중 고정부분(γ_0)은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은행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러한 결과는 기타사업비 구조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그림 8> 참조).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의 차이는 유의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전체 손해보험 중 장기보험 비중이 높고 설계사조직을 비롯한 판매채널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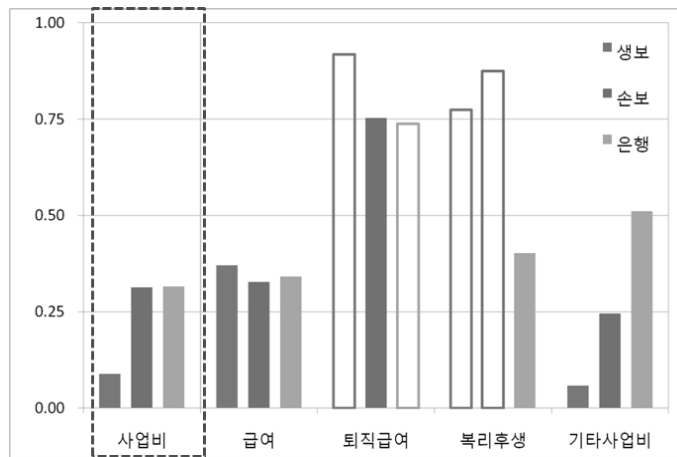
<그림 8> 사업비율 예정수준 중 고정부분



주: 음영 처리된 경우 신뢰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사업비율 예정수준으로의 조정속도(δ)는 손해보험회사와 은행이 유사한 가운데 생명보험회사가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기타사업비 구조의 특징으로 인하여 조정속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그림 9〉 참조).
 - 예정수준으로의 조정속도가 낮다는 것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사업모형을 전환함으로써 사업비율을 관리할 수 있는 유연성이 낮음을 의미함.
 - 이처럼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 사이에서 차이가 나타난 이유는, 최근 들어 장기상품을 확대한 손해보험회사에서 오래전부터 장기상품을 제공해 온 생명보험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용구조 조정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또한 분석대상 기간 중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던 만큼 금융위기로 인하여 사업비율 예정수준으로의 조정속도에서 차이가 발생하였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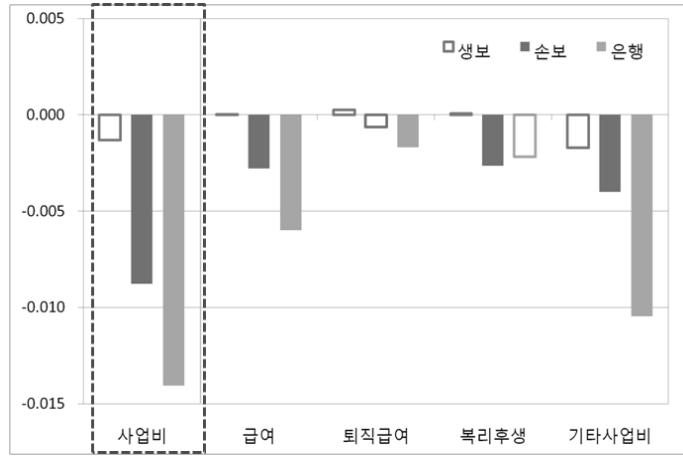
〈그림 9〉 예정수준으로의 조정속도



주 : 음영 처리된 경우 신뢰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영업수익 규모 관련 계수(β_3)의 부호가 모두 음(-)으로 나타난 가운데 계수의 절대값은 은행, 손해보험회사, 생명보험회사 순으로 크게 나타났음.
 -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동 계수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생명보험회사의 영업수익 규모는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조건 1〉)의 상한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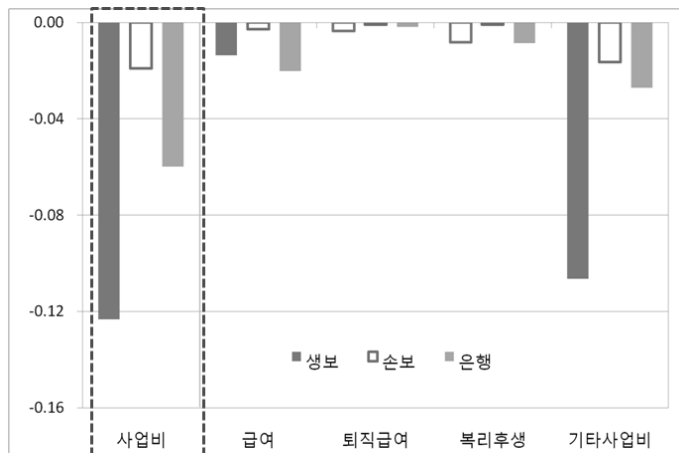
〈그림 10〉 영업수익 규모 계수



주 : 음영 처리된 경우 신뢰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영업수익 성장률 관련 계수(β_g)의 부호가 모두 음(-)으로 나타난 가운데 계수의 절대값은 생명보험회사, 은행, 손해보험회사 순으로 크게 나타났음.
 -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동 계수가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손해보험회사의 영업수익 성장률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할 수 있는 범위(〈조건 2〉)의 상한에 근접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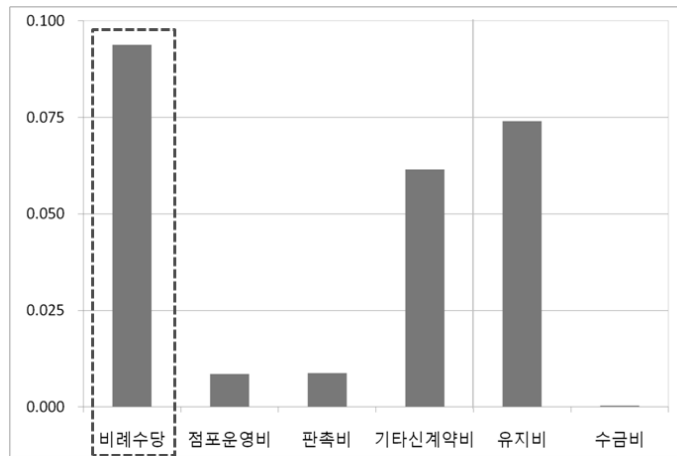
〈그림 11〉 영업수익 성장률 계수



주 : 음영 처리된 경우 신뢰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생명보험회사 사업비율의 특징은 기타사업비 구조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임.
 -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율 특징이 은행이나 손해보험회사의 그것과 상당히 구별되는 바,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수행함.
 -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를 세 가지(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로 구분하고, 신계약비를 네 가지 항목(비례수당, 점포운영비, 판촉비, 기타신계약비)로 보다 세분하여 각 항목별 영업수익 대비 비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함.
 - 사업비율의 예정수준 중 고정부분(γ_0)이 생명보험회사에서 높게 나타난 것은, 전체 사업비 중 신계약비 그리고 신계약비 중 비례수당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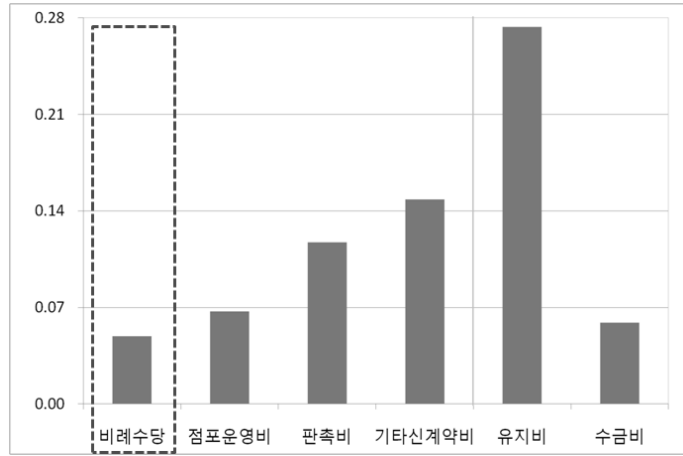
〈그림 12〉 예정수준 중 고정부분(생명보험회사 사업비)



주: 음영 처리된 경우 신뢰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 사업비율 예정수준으로의 조정속도(δ)가 생명보험회사에서 낮게 나타난 것은, 전체 사업비 중 신계약비 그리고 신계약비 중 비례수당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13〉 조정속도(생명보험회사 사업비)



주 : 음영 처리된 경우 신뢰수준 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4. 시사점

- 보험회사 사업비율의 양상을 보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상태인 만큼,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추구하려면 사업모형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조건(외형이 성장함에 따라 사업비율이 하락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인바, 현 사업모형 하에서 외형을 보다 확대할 경우 사업비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려움.
 - 분석결과 생명보험회사는 영업수익(수입보험료) 규모가 커서, 손해보험회사는 영업수익(경과보험료) 성장률이 높아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음.
 - 향후 보험회사 경영전략 차원에서 사업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금융회사는 업종별 고유업무와 더불어 다양한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한편, 동일한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수의 영업점이나 지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 만큼, 업무별 혹은 영업점별 단위에서 영업수익과 사업비율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가 분석이 필요함.

- 금융회사의 영업수익과 사업비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후 비용구조(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의 비중)를 추론하는 것과 더불어, 고정비용과 가변비용을 실제로 산정하고 그것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인 분석이 필요함.

■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신계약비 증가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모형 구조의 전환이 요구됨.

- 판매채널 구조 변화는 보험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타 업권과의 경쟁심화 속에서 보험회사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할 것임.
 - 신계약비(특히 비례수당)에 대한 보험회사의 통제력이 크지 않는 만큼, 보험회사의 협상력(bargaining power)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판매채널 전략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판매채널 구조의 개선을 통해 보험회사는 사업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인하라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모형 구조 전환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지주회사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보다 다양한 형태의 판매채널을 보유할 필요가 있음.
 - 보험회사는 표준형 보험상품과 맞춤형 서비스의 조합, 판매보수 기반 판매채널과 자문보수 기반 판매채널의 조합, 전속 판매채널과 독립 판매채널의 조합 등을 다각적으로 시도하는 가운데 최적의 조합을 도출해 가야함.
- 보험회사 사업모형 구조 전환이 성공하려면,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확립하는 한편, 보험판매채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선지급수수료 체계, 판매자의 권한 및 책임, 보험대리점 선진화, 보험설계사 도입 시스템, 모집종사자의 모집정보 조회제도, 보험종목별 모집자격제도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이 요구됨.